

# “ 감사생활이 체질화 되어야 ”

## ■ 이종윤 원로목사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던 이가 소위 성공한 사례는 이 세상에 많이 있다. 세계 인명록에 기록된 이들의 80%가 면단위 이하에서 즉 농어촌 또는 광산촌 출신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시성(詩聖) 바이런은 발 기형을 갖고 산 이다.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는 간질병 환자였고 악성(樂聖) 베토벤은 청각장애 환자였고 모차르트는 폐결핵 환자였다. 2차 대전의 영웅 루스벨트는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녔고 헬렌켈러 여사는 어려서부터 시각장애 청각장애 환자였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노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느브갓네살 왕의 꿈과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난 글자를 풀어 당시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가 된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는 이들로 인해 그는 사자 굴에 던짐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길 것을 알고도 그런 일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 고난의 날에 감사한 다니엘

다니엘은 소원성취를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상대적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난과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사람이 항상 감사하기란 쉽지 않지만 마음을 겸손히 먹고 자신의 위치를 낮게 잡으면 감사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겸손해서 손해 볼 일은 없으니 그 자체로 이미 덕을 보겠으나 겸손함으로 더 감사할 수 있어 금상첨화 격이다. 그리고 감사할 거리를 우리는 항상 찾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거리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감사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돈 버는 방법이나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찾는 일에는 혈안이나 그것들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감사거리는 코 앞에 두고도 불평만 벌컥 낸다면 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 기도하면 감사가 터진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려진 사실을 알고도 그는 집에 돌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 위기 앞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므로 감사할 수 있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해보라. 현재 나의 처지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감사와 기쁨과 기도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기도하는 이는 지금의 작은 고통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노예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다. 읊은 모든 것을 빼앗겼으나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다.

###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감사

금년에 37년 만에 대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이가 내년을 걱정하면 감사가 없어진다. 우리는 미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다니엘은 의로운 고통을 영광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 출세는 못해도 의롭게 살고, 가진 것은 적으나 진실하게 살며, 성결을 장수보다 더 큰 복으로 여기고 부귀영화보다 의로운 고난과 죽음을 더 복된 것으로 여길 때 감사가 온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다니엘은 사자의 입도 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두려움 대신 감사했다. 그는 감사생활이 체질화되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이다.”

-한국장로신문 2013년 12월 7일 발췌-

##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하지만 교회는 방역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에 안심하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월 넷째 주일로서, 찬양예배 시간에는 리더십특강 네 번째 [희망을 일구는 교육적 리더십 (강사 김성중 목사)]가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물론 올해 섬김위원으로 임명된 모든 성도들은 꼭 참석하셔서 희망을 일구는 리더십으로 무장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123\\_sermon.jpg](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123_sermon.jpg)

## 서울교회 당회 드림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향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뿌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담임목사 Senior Pastor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h1>서울교회</h1>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 인생길이 힘들 때 ”

**■ 민 21:4-9**  
 창47장에서 바로가 야곱에게 ‘금년 연세가 얼마냐?’고 묻자,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백삼십 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 기구하고 수고로 가득했습니다. 시 23:4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생길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다니듯 힘겨웠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2장에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라고 인생의 비애를 실토하고 있습니다. 흔히 인생사를 말할 때 ‘광야’ 같은 세상 갈로 자주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길 가운데 발생한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길을 이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역사를 교훈 삼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 본문의 내용**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후 도저히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며 원망하며 성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간 광야길을 방향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어느 길로 이끌어야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마침내 노선을 결정하고 백성들에게 공표했을 때 또 다시 격렬한 성도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들의 고쳐지지 않는 불평 병에 대하여 광야의 불뱀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광야길은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렘 17:6)이라고 했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사막의 그늘진 땅이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가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인생사에는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 있고 피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에 도전하는 강력한 자세가 필요할 뿐입니다.

- 2. 차선의 유익**  
 인생길에서 항상 계획하고 꿈꾸었던 대로 최선의 길로만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수없이 수정 보완을 거듭하면서 인생사를 이어갑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출발했을 때 아시아로 가려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유럽 전도의 시작이었고 세계 역사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도 없고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으며 원망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들이 우리 앞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 길을 주십니다.

- 3. 실패한 자들을 위하여**  
 본문에는 광야의 시련을 견디지 못해 불평하다가 불 뱀에 물려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불뱀이란 광야에 서식하는 맹독의 독사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에게 무슨 약품이 있어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뱀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낫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희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잠재우고 건강한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두려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4,15)고 하셨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처럼 삶이 힘겹고 매일의 발걸음이 지치고 주변의 사람들이 원망스러울 때 십자가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생이 불뱀에게 물린 것처럼 고통으로 견디기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 삶이 힘들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서문석 장로
II 오전 11시	안용곤 목사	최형열 장로
III 오후 2시	조동수 목사	조동수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엠피 4:22-24...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4(4)...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2(주현절2)...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305(405)...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민 21:4-9...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합 께  
 봉헌 Offering .....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합 께  
 설 교 Sermon .....“인생길이 힘들 때”...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543(342)...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안용곤 목사, 설교 김성중 목사

목 도 ..... 다 합 께  
 성 시 ..... 시 95:6-8 ..... 인 도 자  
 찬 송 ..... 569(442) ..... 다 합 께  
 기 도 ..... 공민호 집사  
 찬 송 ..... 411(473) ..... 다 합 께  
 성 경 ..... 요 10:11-13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육리더십” ... 설 교 자

\* 찬 송 ..... 135(133) ..... 다 합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합 께

##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조동수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김미성 권사 II부: 최금숙 권사  
 성 경 ..... 행 14:8-18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화2  
 설 교 ..... 손달익, 조원영 목사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 교 회 소 식

### ☛ 모 임

1. 새가족부 월례회 / 23일(주) 오전 10시 10분 602호
2. 권사 월례회 / 23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3. 사라 전도회 월례회 / 23일(주) 3부 예배 후 602호
4. 뵘뵘 전도회 모임 / 24일(월) 오후 8시 비대면(zoom)

### ☛ 알 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1)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교회학교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2) 수요1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대면,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3)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638명	557명	2,195명	419명	2,047명



### 기도할 자리

기도하기 위해 장소를 찾아 헤매는 이들이 있다. 물론 상달되기 위한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자리에서 빌어야 한다.

가장 적합한 기도의 장소가 있다면 그곳은 순종의 자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말만 들으라는 식의 기도는 억지로 기도가 아니다.

상달될 기도가 되려면 회개의 자리에서 빌어야 한다. 아우성을 치거나 미사여구를 늘어 놓는 기도가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옷을 찢듯, 마음을 찢으며 죄를 통회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또한 충성의 자리에서 기도하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는 기도라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기 때문이다.

순종과 회개와 충성의 자리에서 비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하자.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엠피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낙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련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민 21:7)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1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